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제5편

이사야 사십: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Jeff Pippenger

2023-10-25

이사야 40장의 첫 열일곱 절에서, 14만 4천은 세상이 기뻐하던 동안 그들이 거리에서 죽은 채 누워 있던 삼 일 반의 끝에 예언적으로 위치한다. 모든 선지자들은 서로 일치하며, 그들이 제시하는 예언적 사건들은 언제나 다른 선지자들의 것과 맞아떨어진다. 이는 하나님이 혼란의 근원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32, 33.

예수께서 떠나 계실 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적 서사를 구성하는 스물여섯 장 가운데 맨 앞의 첫 절, 그 첫마디에 담겨 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최초 언급의 원칙은, 이어지는 스물여섯 장을 보혜자의 오심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성취됨에 비추어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16, 26.

밀러파의 역사에 나타난 한밤중의 외침은 14만 4천인의 역사에서 반복된다.

악에 잠겨 있고, 기만과 미혹 속에, 죽음의 그림자 한가운데 있는 세상이 있다—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 영혼의 산고를 겪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음성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은 신호가 주어질 미래로 옮겨졌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그를 맞으러 나아가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등불을 보충할 기름을 구하기를 지체하다가, 너무 늦게서야 기름으로 상징되는 품성은 양도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 2월 11일.

이렇게 묻는다. "어떤 음성이"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가? 이사야 40장에서 그들을 깨우는 "음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 이르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음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2, 3.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는 늦은 비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너희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 먼 미래로 미루고 있다. 나는 늦은 비가 한밤중의 외침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열 배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 Spalding and

Magan, 5.

하나님의 말씀에는 늦은비 기별을 나타내는 많은 상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단어 또는 구절이 두 번 반복되는 상징이다. 단어나 구절의 이중 반복은 마지막 때의 한밤중 외침, 곧 늦은비 기별을 상징한다. "위로하라"의 반복이라는 상징은 이사야 40장의 도입부를 지체기 속에 위치시키는데, 그때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한밤중 외침으로 대표되는 그 기별이 인식되고 이어 선포되어야 한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처녀들을 깨우시려고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들은 예언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로, 또 어떤 예언 구절에서는 죽음의 잠에 든 자들로 묘사된다. 이사야 40장 1절은 2020년 7월 18일의 실망 '이후' 상징적 삼일 반이 지난 시점에 예언적으로 위치하는데, 바로 그때가 보혜사가 잠든 자들을 깨우기 위해 보내심을 받는 때이기 때문이다. 삼일 반은 광야를 상징하며, 바로 그곳에서 그 "음성"이 "외치기" 시작한다.

요한계시록 11장, 에스겔 37장,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밀러파의 역사(모든 개혁 운동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이정표들과 함께)가 서로 결합되어 잠자는 처녀들을 깨우는 '특정한 과정'을 밝혀 준다. 그 과정은 처녀들이 실망의 때에 잠들면서 시작된다. 실망으로 시작된 지체의 기간은 마침내 지체의 때로 인정된다. 지체의 때의 마지막 부분은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가 전개되는 때이다. 메시지가 정립되면, 그 절정인 심판에 이를 때까지 선포된다.

이사야서에서 '소리'로 묘사된 그 사자는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는 상징적 언어로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슬람의 예언적 메시지는 곧 다가올 주일법과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나팔의 권세이며,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은 주일법을 제정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 세력들은 용의 상징인 서기 321년의 이교 로마, 짐승의 상징인 서기 538년의 교황 로마,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상징인 미국에서 곧 시행될 주일법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선포하려 하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수반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과 보증'은 하박국 2장 3절에서 "마지막에 이르러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표현된 것과 동일한 예언적 맥락에 놓여 있다. 이슬람의 메시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올 것이다. 이사야 40장의 마지막 절은 하박국의 환상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주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것이며,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31.

이제 봉인이 풀리고 있는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는 실망으로 시작하여 실망으로 끝나는 세 개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그 상징적 역사에는 두 개의 기간으로 구분되는 세 개의 이정표가 있다. 실망이 지체의 때를 시작한다. 지체의 때는 한밤중의 외침에 대한 수정된 메시지와 예언으로 이어진다.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간을 시작하며, 그 기간은 심판으로 표현되는 두 번째 실망으로 이어진다. 두 기간으로 구분되는 그 세 단계는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에 담긴 알파와 오메가를 나타낸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은 또한 이사야 40장의 "소리"를 대변한다. 이사야 40장의 그 "소리"는 "내가 무엇을 외칠까?"라고 묻는다. 그런 다음 에스겔 37장 7절의 "소리"는 그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래서 나는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하자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일어나며,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 뼈가 뼈에 이어졌다.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돋고, 그 위를 피부가 덮었으나, 그들 안에는 호흡이 없었다. 에스겔 37:7, 8.

에스겔의 첫 번째 예언은 뼈와 살을 함께 모아 결합시켰지만, 아직 생명은 없었다. 그래서 에스겔은 두 번째로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두 번째 예언은 그 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 두 예언은 아담의 창조로 예표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생령이 되었다. 창세기 2:7.

죽은 마른 뼈들을 생명으로 되살리는 두 단계의 과정은 아담의 창조에서 처음 언급되며, 이로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또한 그의 창조 능력임이 강조된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지으셨고', 에스겔의 첫 예언은 뼈들과 육체가 한데 모이게 했으며, 그다음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은 뼈가 아니라 '바람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바람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사방에서 오라, 생기여,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불어 그들로 살게 하라'고 했다. 시신들을 강대한 군대로 살려내는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은 시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향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람에게 시신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라는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숨'이 처음 언급되는 것은 아담의 창조이며, 거기에서 그것은 생명의 호흡으로 규정되고, 시신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사방의 바람에서 온다.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네 바람은 속박을 풀고 온 지면을 휩쓸며 질주하려는 성난 말로 표현되며, 그 지나가는 길마다 파괴와 죽음을 몰고 온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들어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둔하고 차갑고 죽어 있어야 하겠는가? 오, 우리 교회들 안에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생기가 불어넣어져 그들이 일어나 서서 살게 되기를." Manuscript Releases, 제20권, 217쪽.

여기에서의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잠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인가'이다... 둘 다 같은 예언적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천사들에 의해 붙들려 있는 네 바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숨이 죽은 자들 안에 들어가 그들이 일어나 살아나게 하는 메시지다. 네 바람의 메시지는 이슬람의 성난 말의 메시지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바람의 메시지는 인침의 메시지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의 인침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네 바람이 붙들려 있음을 밝혀 주는 메시지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또 나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에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도록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들도 해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7:1-3

에스겔의 둘째 예언은 바람을 향해 선포된 것이었고, 그 바람이 몸들에게 전해 준 생명은 네 바람의 메시지에서 비롯되었다. 에스겔 37장 8절부터 10절에서 '바람' 또는 '호흡'으로 나타나는 말은 모두 같은 히브리어 단어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에스겔에서 생명의 호흡은 네 바람으로부터 오는 14만 4천 명의 인침의 메시지이다. 그 메시지는 첫째 메시지에 의해 죽음의 골짜기에 모아진 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전한다. 네 바람의 메시지는 일요일 법령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심판을 가져오는 이슬람의 메시지이다. 그것은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이다.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는 실망으로 시작되며, 그로 인해 기다림의 때가 시작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2020년 7월 18일에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 기다림의 때가 시작되었다. 주께서 거리에서 죽어 있는 두 증인이 살 수 있겠느냐고 에스겔에게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와 그의 영에 이끌려 나가 바로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에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가 나로 그 뼈들 곁을 두루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니 그 열린 골짜기에 뼈가 매우 많고, 보라, 심히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37:1-3.

7절에서 에스겔이 두 예언 중 첫 번째를 전할 때 그 메시지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은 죽은 마른 뼈들을,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자신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복 받은 자들로 나타내며, 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에스겔서 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체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서게 하시니,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들었다. 에스겔 2:1, 2.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시체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그들의 발로 일어서다. 그들을 그들의 발로 일어서게 하는 이는 보혜사이다.

사흘 반이 지난 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발을 딛고 일어섰고 그들을 본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 요한계시록 11:11

죽은 자들이 일어서는 것은,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일요일 법의 심판 때 높이 들려지는 깃발이 되게 하는 두 단계로 된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 그들이 11장에서 일어서면,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한다.

그는 두려워하여 자기의 요새로 물러갈 것이며, 그의 고관들은 그 깃발을 두려워하리라. 그의 불은 시온에 있고 그의 용광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다. 이사야 31:9.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두 번째 부분이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당시 바벨론의 딸들로 식별되었던 교회들로부터 밀러주의자들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신실한 이들은 나와서 밀러주의자들과 함께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 기별로 신자들의 한 무리가 형성되었고, 이어서 둘째 단계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결합되어 힘을 더했다. 그러자 밀러주의자들은 그 기별을 해일처럼 온 땅에 퍼뜨리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그 두 단계의 과정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음성이며, 요한계시록 11장의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곧 에스겔의 죽은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다.

하늘에서 온 능한 천사를 돕기 위해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듯한 음성들을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 이 기별은 셋째 기별에 덧붙여진 것처럼 보였고, 1844년에 한밤중의 외침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결합되었던 것처럼 그것과 연합되었다. 영적 은사, 제1권, 195, 196.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에서 첫 번째 이정표는 기다림의 때를 시작하게 하는 실망이다. 기다림의 때는 삼 일 반으로 표상되는 기간이며, 이는 광야를 상징한다. 광야에서의 40년 방황이 끝날 때, 여호수아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삼 일 반의 끝에 에스겔은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되어, 죽은 몸들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에스겔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은 몸의 지체들을 한데 모이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고, 아직 군대가 아니며, 아직 인침을 받지 않았다. 에스겔 2장에서 에스겔이 말한 "여호와와 말씀"은, 보혜사가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서게 되며 동시에 여호와와 말씀을 듣게 됨을 밝혀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 지 삼 일 반 후에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일단 일어서면, 아직 살아 있지 않은 '몸들'에게 두 번째 예언이 주어질 것이다. 이사야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자신이 무엇을 예언으로 외쳐야 하는지 묻는다. 에스겔과 이사야 40장의 그 '소리'가 전하라고 명령받은 그 '메시지'는 이슬람의 메시지다. 그 예언이 선포되면, '아담'은 강력한 군대로 살아난다. 그때 살아 있는 두 증인은 머지않아 통과될 일요일 법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슬람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한다. 일요일 법의 심판은 일곱 천둥의 숨겨진 역사에서 세 번째 이정표다. 그것이 성취되면, 그 군대는 하늘을 향한 깃발로 높이 들려지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상징된다.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경험을 해왔다. 그 천사들은 하늘 한가운데를 날며 온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천상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이 그 순서대로 이 세 기별을 선포한다. 선택된 기별, 제2권, 387쪽.

높이 들린 기치는 하늘 중천을 날아가며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셋째 천사이다. 미가엘이 일어나고 인류를 위한 은혜의 문이 닫힐 때까지, 그 강대한

군대는 그 기별을 세상에 계속 전한다.

다음 글에서 이 생각들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그를 맞으러 나가라.” 마태복음 25:6.